

“4·19정신은 국가 정통성 떠받치는 기둥”

김지은 기자 입력 2026-04-15 11:33 수정 2026-04-15 12:12  29면

4월회, 4·19혁명 기념식
고 서명숙 이사장에 문화상



지난 14일 열린 4·19민주혁명 제66주년 기념 및 4월회 창립 제35주년 기념식에서 정용상(가운데) 4월회 회장이 4·19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 4월회 제공



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. 4월회 제공

“4·19 혁명은 주권재민의 원칙을 역사적으로 증명한 대서사이며, 그 정신은 대한민국 국가 정통성의 핵심 축입니다.”

정용상(사진 가운데) 사단법인 4월회 회장은 14일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4·19민주혁명 제66주년 기념 및 4월회 창립 제35주년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혔다. 정 회장은 “4·19 정신은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대통합을 통해 선진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나침반”이라고 강조했다. 권세준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축사를 했다.

이날 제27회 4·19문화상 시상식 및 제17회 4·19장학금 수여식도 함께 열렸다. 4·19 문화상은 4·19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, 정의로운 사회 구현과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. 올해는 지난 7일 별세한 고 서명숙 사단법인 제주올레 이사장이 수상했다. 서 이사장은 제주올레 길을 만들어 트레킹 문화 확산과 공동체 회복, 국민 통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.

4·19장학생으로는 권성대 환일고 학생 등 10명이 선발됐다. 4·19장학재단은 4·19 혁명에 참여한 학교의 후배 학생, 4·19 관련 단체 회원 유자녀, 탈북민 및 다문화 가정 자녀 등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200여 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왔다.

한편 4월회는 1970년 무명회로 출발해 비공개로 활동하다 1991년 사단법인으로 창립됐다. 4·19혁명 당시 학생운동 주역과 그 후대들이 활동하는 단체로, 4·19혁명 정신의 현창·계승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.

김지은 기자